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도시 공간 속 인간심상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좌 선 심

도시 공간 속 인간심상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좌 선 심

인 준 서

좌선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주제의 이론적 배경과 작품 전개 방법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예술 활동은 세상의 밝은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대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예술인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이다. 본인은 현대 도시 공간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 속에서 현대인의 삶에 대한 탐구로 작업을 하였다.

도시 공간은 범죄, 혼잡과 경쟁, 생태환경의 파괴, 그리고 인간소외, 비인간화 등 사회병리와 교란현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다. 도시 공간에서 현대인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겨진 삶을 살고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라는 협소한 곳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간성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인간성의 상실은 자아상실과 인간소외로 나타난다. 자아상실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바쁜 일상에 쫓기며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대변하는 언어이다. 인간 소외는 도시 공간의 병리적 현상들과 물질만능주의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도시 공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은 사회-개인-사회의 순환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성 상실을 표현하기 위해 콘크리트 건물과 각종 상표에 주목하였다. 콘크리트 건물은 삭막한 도시공간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인간의 가치와 자연환경을 파괴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인위적 환경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각종 상표는 물질 만능주의, 가치전도, 부유계층과 하위계층을 구분 짓는 매개체의 의미로 인간소외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본인은 시각적 형식을 통해 인간소외, 자아상실 등 현대인의 내면세계를 인간형상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인간의 형상은 실질적 공간이 아니라 몽환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여백의 공간과 삭막한 도시의 모습으로 인간이 소외된 모습을 부각시켰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도시 공간의 병리적 현상과 그곳에서 현대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아가 상실되고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개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순환과정을 통해 인간소외가 진행되는지 연구하였다.

작품 전개 방법에서는 현대인의 각박함과 갈등의 응어리를 인간의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을 둘러싼 공간은 이러한 몸짓을 부각시키며 여백과의 소통으로 삶의 흔적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두운 톤을 사용하였다. 그 어두운 톤은 동판위에 거칠게 표현된 수많은 곡선과 직선이 겹쳐지고 부식됨으로써 작품의 깊이감을 더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은 도시 공간에서의 인간성 상실, 소외, 비인간화 등의 병리 현상을 고독하고 비사실적인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현대인은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형상이지만 그들이 갖는 자아상실와 인간소외의 모습이다. 불안한 모습과 고독하게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이고 우울한 삶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 현대 도시 공간	3
2) 도시 공간과 현대인	5
3) 사회 속 인간의 단면	6
2. 작품 전개 방법	8
1) 인간의 몸짓을 통한 형상	8
2) 삶의 흔적을 담아낸 공간	11
3) 소외의 의미로서의 색	12
III. 작품 설명	15
IV. 결론	42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투영 Reflection, 30×45cm, Etching·Aquatint, 2003	18
【작품 2】 투영 Reflection, 108×78cm, Etching·Aquatint, 2003	20
【작품 3】 투영 Reflection, 100×70cm, Etching·Aquatint, 2003	22
【작품 4】 투영 Reflection, 30×40cm, Etching·Aquatint, 2004	24
【작품 5】 투영 Reflection, 30×40cm, Etching·Aquatint, 2004	26
【작품 6】 투영 Reflection, 60×90cm, Etching·Aquatint, 2004	28
【작품 7】 투영 Reflection, 20×30cm, Etching·Aquatint, 2004	30
【작품 8】 투영 Reflection, 50×70cm, Etching·Aquatint, 2004	32
【작품 9】 투영 Reflection, 20×30cm, Etching·Aquatint, 2004	34
【작품 10】 투영 Reflection, 30×70cm, Etching·Aquatint, 2004	36
【작품 11】 투영 Reflection, 30×70cm, Etching·Aquatint, 2004	38
【작품 12】 투영 Reflection, 60×90cm, Etching·Aquatint, 2004	40

I. 서론

도시 공간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아상실과 인간소외도 함께 안겨준다.

도시 공간은 우리가 늘 부딪히며 겪게 되는 실질적인 공간이다. 그 곳에서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그러한 일들과 맞닥뜨린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고, 정치권력과 맞서기도 하며, 사회단체나 회사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 공간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하여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주가 되는 주객전도로 인해 자아상실감도 느끼게 된다. 또한, 도시 공간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토대위에 건설된 인위적 환경으로서 그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본에 의해 선택받아야 한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제한적인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현대인은 필연적으로 도시 생활의 주체가 아니라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인간소외나 자아상실은 산업화가 진전되고 분업이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이 느끼는 심리를 파악하여 본인의 작업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러한 표현의 이론적 근거를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과 2004년 동안 제작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첫 장에는 도시 공간의 특성과 그 곳에서 오는 현대인의 심리와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현대 물질문명을 영위하는 인간의 삶에서 그들의 모습과 생활공간 안에 내포되어있는 상호 역동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장에서는 현대인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보고, 작품에서 공간의 역할과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사용된 색채와 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 표현 방법에 있어, 인간소외와 물질문명 안에 투영된 거칠고 몽환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차용함으로써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I. 본 론

도시 공간은 풍요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 공간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민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된다.

1. 이론적 배경

1) 현대 도시 공간

공간은 모든 인간 생활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공간에 근거한다.¹⁾ 오늘날 우리는 매우 복잡한 사회 공간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로 인해 흔히 우리가 위치한 곳을 알 수 없는 무장소감이나 또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 들기도 한다.

도시 공간은 일정한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정착생활

1)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p.48

을 하게 되면서 그 집단적 거주지로서, 정치적 권위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장소 또는 물물 교환을 위한 시장과 잉여물의 저장소로서 형성되었다. 이렇듯 도시 공간은 사회적 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이며 생활을 위한 문화적 장소로서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했다.

이렇듯 도시는 대규모 생산 시설이 집중되고 생산성의 증대 및 고용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문화적 생활이 복잡하게 뒤얽힌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건축물이 그 규모와 높이를 확대하면서 도시 공간은 외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복잡한 사회 경제적 활동이 전개되는 장으로서, 도시인의 의식 형성과 활동을 규정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²⁾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반영되는 공간이며 이에 따라 조성된 도시 경관이 가시적 형태로 드러나고,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곳과 동시에 이것에 규정받는 도시인의 의식과 언어가 상징과 기호로 재현되는 문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장이며, 시민 사회의 계급성을 내포한 도시 사회 운동이 전개되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도시 공간은 인간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는 모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혼돈과 위협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회색 콘크리트 더미에 불과한 고층 빌딩과 천편일률적으로 조형된 아파트 단지, 이러한 도시 환경은 무미건조하면서도 억압적인 위압감을 준다. 그 속의 현대인들은 낮선 군중의 흐름 속에서 피곤하게 지들린 삶을 살아가면서, 도시 혼잡이나 환경오염, 범죄와 마약, 교통사고와 거리의 시위 등과 항상 부딪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무장소감으로 인해 자아가 왜

2) 앞의 책, p.77

소해지거나 상실되는 느낌을 갖는다. 광장이나 거리의 백화점에서 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등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배에 의해 더욱더 심각한 억압과 소외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2) 도시 공간과 현대인

사람들은 도시 공간의 삶이 현재의 삶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모이게 한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자본에 의해 선택 받아야 하지만 자본에 의해 선택받는 자가 한정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한정된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 받기 위해 동료들과 혹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살아간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장동료, 경쟁업체 사람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경쟁자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 인간은 점차 새로운 사회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도태되어 가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빈부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발생과 이의 대물림으로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하위 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남들에게는 부유층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는 유명상표의 상품을 갖고 싶어 하는 소유욕과 더 화려한 외모를 과시하려는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상품은 인간이 상품에 대한 소유욕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고급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급 브랜드를 입어야만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또한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을 파고들으로써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인은 광고 메시지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욕구를 내면화 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³⁾ 그리고 상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부를 표시해 주기도 한다. 상표는 떼어낼 수도 없게 철저히 박음질되거나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옷이나 가방을 버릴 때까지 붙이고 다녀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옷의 상표, 즉 스티커를 손금과 관상을 보듯이 상대의 취향이나 경제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장보드리야르 말대로 정보는 많고 의미는 더욱 적어진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간판은 소비와 자본의 천박한 기호일 뿐 저의도 합의도 없는 것이며, 거대한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나 백화점, 공원, 극장, 음식점들은 모든 시설들이 삶을 재단하는 설비들이다.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은 소외된 자들이거나 예외적인 부자들이며, 사람들은 평수에 따라 인간의 잣대를 겨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 공간에 반영되고, 현대인은 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공간 속에서 인간은 축소되고 존재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3) 사회 속 인간의 단면

우리의 삶은 먹고 자고 입는 문화를 누리기 위해 영위되고 있다. 결국 사회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와, 상품, 매체 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사회 속에 현대인은 경쟁을 하고 소유욕과 함께 그들의 가슴 속에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현대인은 점점 무기력하고 외로움과 소외를 안고

3) 진교훈외 지음, 인간과 현대적 삶, 철학과 현실사, 2003, p.26

4) 강홍구, 시사한 것들의 아름다움, 황금가지, 2001, p.115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의 소외는 ‘사회- 개인 -사회’의 순환 속에 생겨난다. 소외론의 출발점은 ‘사회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고, 소외론의 종착점은 ‘개인에 의해 재생산된 사회가 개인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소외는 끊임없이 순환된다. 결국 소외의 순환은 사회에 의해 순환되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⁵⁾를 초래하여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건물, 상품, 광고, 전신주 등 모든 것들은 사회 압력에 의해 재생산 된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소외는 사회압력의 작용에 의한 개인과 사회의 순환 속에 생산된다. 스스로 자기자신이 아니고 스스로 원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결과에 책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다시 스스로 자기 자신일 수 없게 만드는 힘으로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이 소외의 순환이다.⁶⁾ 이러한 현대인의 소외는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인의 도시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보면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해서 도시화는 그 자체로 전통적인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도시의 유기적 분업과 삶의 양식에 걸맞는 합리적 인간관계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기에 이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멀리하게 된다. 인간은 이기적인 모습에서 자아상실감을 느끼며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 변화되어가는 속성들은 자본주의에 따른 인간의 소유욕과 경쟁심을 일으키며 점점 더 소외되어가는 현대인의 단면을 말해 주고 있다.

소외는 자아상실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자아상실는 스스로 원해서 한 행위가 아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

5) 철학 사상 연구회, 삶과 철학 -노동과 소외, 동녘, 2003, p.77

6) 이흥균 지음, 소외의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2004. p.116

니라 그 결과는 다시 사회 구성원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 그의 자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공간에서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상실과 소외, 고독을 느낀다. 이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 패턴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가진 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시스템 속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주(主)가 되지 못하고 부속품(附屬品)으로 전락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부속품이 되기를 강요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현대인은 자아상실와 소외감 그리고 고독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소외는 도시사회의 산물이며 이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2. 작품 전개 방법

이번 항에서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소외와 자아상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형상화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현하는데 있어 작품 속 인간을 형상화하기 위한 화면구성과 공간, 톤에 대해서 알아보고, 색을 통해 나타난 작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인간의 몸짓을 통한 형상

본인의 작업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감정의 변화를 읽는 데에서 시작 된다. 앞서서도 얘기 하였듯이 도시 공간은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지칭되는 대중사회화, 인간소외, 비인간화 등을 낳고 있다. 본

인은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인간의 형태와 몸짓을 통해 소외와 상실된 현대인의 감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감정은 사람들의 표정들과 자세에서 인간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본인의 이러한 일상적 삶에 대한 관심은 대학시절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시장구석 한 모퉁이 어느 할머니를 보면서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속에서 그녀의 삶을 느낄 수 있었고 이때부터 삶에 대한 의문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즐곳 인간의 삶에 대해 끊임없는 탐구와 관찰을 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모습은 과장이나 변형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접근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 형상을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각자 소속된 사회 속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듯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다양한 몸짓에서 시작하였다. 처음 작업의 진행시 본인은 인간의 모습을 오리고 붙이는 형식으로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형상은 인위적이며 화려한 걸모습을 띄는 마네킹의 형상들에 반해, 딱딱한 껍질과 단단한 표피로 남아버린 현대인의 모습으로 과장되었다. 본인 작업은 로봇처럼 각각의 신체 부위별을 조각낸 동판으로 도시 공간의 삭막함과 소외된 인간의 갈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조각낸 판을 조합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 전개방식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 형상을 건조하고 우울한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 시키는 행위와 일치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현대인의 모습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모습은 활기차고 기운 넘치는 일상이 아니라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도시 공간을 인간의 형상 속에 투영함으로써 소외되고 외로운 현대인의 이면을 그리고자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일상적 삶 속에서 발견된다. 술에 취해 녹초가 된 사람, 고개를 떨군 사람, 지친 잠에 쓰러진 사람, 스스로 서있지 못해 벽에 기대 서 있는 사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지만 홀로 가야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각박함과 갈등의 응어리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이다.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착안하여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인물의 형상을 통해 담아냈다.

본인 작품에서 머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이 갈망하는 형상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머리의 형상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보다 여백과 소통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심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본인은 사실적 묘사가 아닌 인물 형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물 모습은 크게 머리, 몸통, 팔, 다리로 그 때의 상황에 따른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작품 속 인물은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옷차림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품과 직업을 알 수 있다. 현대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로 몸을 치장한 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부정한다. 인간의 치장은 메마른 껍데기에 불과하며 인간은 외면에 보이는 눈요깃거리가 아닌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소외, 외로움, 고독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건물에서의 광고나 상표, 인쇄매체와 함께 복잡하게 뒤얽혀 투영된다.

인간의 형상은 도시 공간 속 광고나 상표의 사진을 오려붙여서 투영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인간과 도시 공간 그리고 배경은 화면 속 공간과 톤에 의하여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톤과 공간은 풍부한 느낌을 주는 목탄을 이용해 인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동판은 회화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한 톤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충분하였다. 그리고 인위적인 도시 공간은 포토에칭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동판은 부식과정에서 이뤄지는 우연의 효과와 긁어내고 문지르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매개체이다. 자연스런 부식의 흔적들과 자유로운 선 등 판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은 본인의 삶을 반영해주는 노동의 대가이다.

작품 [2], [3]은 각각 분리된 동판을 겹쳐 조합하여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조

립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동판을 오린 흔적들은 인간의 심상표현을 날카로운 선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연출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기계화된 문명 속에 생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본인은 인간의 모습 안에 도시 공간이 투영되며 인간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형상화 하여 자아상실을 표현하고자 한다.

2) 삶의 흔적을 담아낸 공간

본인의 작품에서 공간은 인간의 삶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심상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공간이란 물체가 점유하지 않는 곳, 또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퍼져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실상 형체에 의한 위치와 방향을 갖는 나머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나, 여백이라는 의미의 공간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림에서 표현된 공간은 허구의 공간이며 실제의 공간이 아니다. 화선지 위에 그려진 동양의 산수화는 흰 여백으로서 공간감을 나타내고, 캔버스 위에 그려진 풍경화는 명암이나 원근감으로 착시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탈리아 화가 루치오 폰타나는 이제껏 그림이 허구의 공간을 그려내고 있음에 반발하여, 팽팽한 캔버스 화면을 예리한 칼날로 찢기도 하고 난데없이 구멍을 내기도 한다.⁷⁾ 그는 허구의 공간을 실제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물을 탄생시켰다. 동양화에서 여백이라 함은 빈 공간, 안 그려진 듯 그려진 공간이며 이 공간은 감상자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창작을 해나가며 그 여백으로 인해 생각할 여유를 갖게 한다.

본인의 캔버스는 동판이다. 본인의 작업은 함석가위로 판을 오리거나 칼로 자르며 판의 표면을 두들기기도 하고 니들로 긁기도 한다(작품 [2], [3]). 작품

7)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7, p.154

[4], [5], [6], [7], [8]은 허구의 공간을 붓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닌, 실제의 공간을 판에 의해 종이로 옮겨 또 다른 간접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종이 위에 찍힌 본인의 공간은 무언의 힘을 발휘하는 내면의 공간이다.

본인의 작품 [1], [4], [5], [6], [8]속 공간은 형식적으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공간이며 둘째는 흑색의 톤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고 셋째는 여백 속 소통의 공간이다. 본인의 작품 전반에서 보이는 공간의 의미는 삶의 흔적을 담아내는 곳이다.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킨 공간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공간이며, 흑색의 공간은 그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고 각박한 사회생활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심상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여백 속 소통의 공간은 인간의 형태와 맞물려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진다. 이 공간은 고독과 희망이 교차되며 각박한 도시 생활 속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허함과 형상만으로 부족한 요소를 메워주기도 한다. 그러한 형상은 공간에 의해 부각되고 공간 설정은 관람자로 하여금 인간내면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본인이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톤이라는 것은 형상을 극대화하고 표면화시키기 위한 작업임과 동시에 공간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다.

3) 소외의 의미로서의 색

색이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듯이 색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적인미를 자극할 수 있는 작업을 어필해주기에 충분한 요소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각의 70%는 시각이 차지하고, 그 중 색채의 자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색을 만나고 색을

8) I.R.I색채 연구소, 어떤색이 좋을까?, 영진닷컴, 2004, p.1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색은 대상을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색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징된 이미지가 있다. 흑색은 여러 색과 배색하면 모던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된다. 모던한 이미지는 ‘현대적’, ‘근대적’ 이라는 의미로서 도회적인 감성과 분위기를 나타낸다. 본인 작업 속에서 색은 현대인이 갖는 정서의 상징으로 표출된다. 본인은 잊혀져가는 자아를 찾고자 인체의 행위를 빌어 내면에 잠재된 의식을 분출하는 의미로 어두운 색을 사용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특정한 색은 없다. 그렇다고 억지로 흑백차이를 강하게 하여 인간의 형상만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아니다. 초기 작품 [1], [2]은 검정색에 초록, 파랑, 빨강, 노랑 등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여 도회적인 색으로 만들어냈다. 어둡지만 그 어둠 속 은밀히 내면에 감추어진 심리적인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밀바탕 배경색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하는 미디움을 사용하여 모던한 느낌을 주었다. 작품 [3], [4], [5]에서 보듯이 진한 검정색은 드문드문 오려붙인 상표 고유의 색과 함께 판화지에 스며들게 하여 찍어냈다. 레터링(Lettering)한 은색 텍스트는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작품 속에 포함시켰고, 상표에서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은 전사하여 오려 붙인 후 어두운 톤으로 찍어 내었다. 작품 속에 찍혀진 색에 사회 속에서 상품을 대표하는 문구나 숫자 등을 혼합시킴으로써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이야깃거리를 표현하였다.

작품 [6], [7]에서의 도시 이미지들은 도회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정감 있고 따뜻한 색보다는 차갑고 무거운 느낌의 색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쓰인 색은 대체적으로 어두운 검정색에 가깝다. 어두운 색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응시하는 심상을 발산한 것이며 인간의 형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화면 속 공간과 깊이감을 나타내준다. 검정색과 여백의 흰 바탕은 움츠리던 공간 속에서 발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백의 흰 공간은 무색의 공간이 아니라 미묘하게 옅은색 잉크가 깔려있어 긴장을 완화시키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화면 전체에는 어두운 색의

강약이 공존하며 때에 따라서 덩어리를 이루고 수많은 선이 모여 톤을 이루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여백과 어둠의 경계에는 많은 선들이 중첩된 톤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톤은 선의 중첩이 더해지고 부식된 면이 깊어질수록 짙어지며, 그럴수록 절망감은 더해 가고 인간의 심상을 부각시키는 힘이 된다. 반대로 여백 부분 경계에는 공기가 순환되고 숨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며 색은 소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숨겨진 희망의 요소를 찾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색의 의미는 인간성 상실에 의한 소외이다. 이러한 색은 우울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있다. 어두운 색들은 인간의 형상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깊은 색감을 나타내기 위한 동판화의 기법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색은 인간의 움츠려있는 내면속의 감정을 소통하는 역할과 동시에 감정을 발산하는 매개체가 된다.

Ⅲ. 작품 설명

작품의 이미지들은 사실적인 도시 공간의 이미지와 본인이 그 안의 대상을 주시하고 그 감정에 동참함으로써 표현되었다. 본 작품에서 소재는 도시 공간과 현대인이다. 이 두 가지 소재는 인간 몸짓을 통해 인간내면의 감성적인 측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전개된다.

작품 표현에 있어 도시 이미지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딱딱한 건축 구조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건축구조물을 포장하고 있는 소재로는 간판과 광고의 이미지, 인쇄매체, 다양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상업화에 따른 인간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 속 적막한 현대인의 감정을 읽어내고자 도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과 각종 매체의 광고문구, 상표, 간판 등을 인간의 형상 안에 또 다른 공간으로 혼합시켜 나갔다. 그것은 도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 형상은 약간의 변형을 통한 왜곡된 자세로써 표현하였다. 이것은 변형을 통한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형상은 재현적인 사실의 묘사보다는 목탄 드로잉에서 오는 풍부한 톤과, 딱딱한 선들의 반복된 중첩에서 생기는 톤에 의해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톤 주변을 둘러싼 공간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실제 대상으로 포착한 인간의 감정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얼굴은 눈, 코, 입이 생략되고 형체를 통해 표현했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현대인의 익명성을 삭막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며 톤에 의한 불안한 심리를 말하고자 하였다.

화면 구성에 있어 공간처리는 조형적으로 공허하고 외로운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톤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인물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였다.

화면에서 인물 형상과 톤은 부식에 의해 서로 융합되어 화면의 구조를 형성한다. 화면 속 구성에서 인물과 건물의 이미지는 서로 상반된 관계이지만 이미지의 상황성을 강화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인간을 형상하는데 있어 선의 표현은 감정상태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선은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낸다. 선은 크게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어지며 직선은 침묵, 공허함, 신경질적인 느낌을, 곡선은 유연함, 복잡함, 운동감 등을 표현한다. 또한 곡선 중 자유곡선은 분주하고 감정이 풍부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⁹⁾ 본인은 선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였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선과 무의식적인 선의 흔적들을 통하여 현대인의 내면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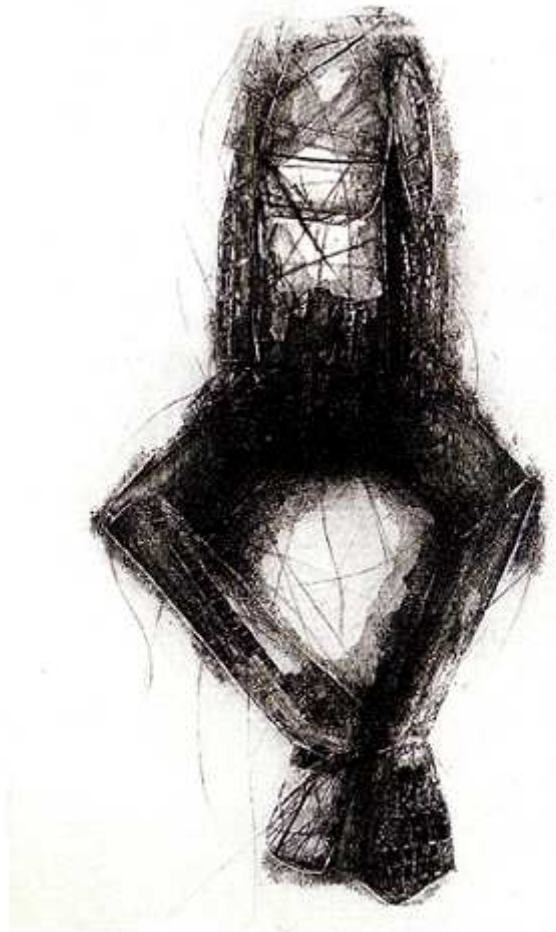
본인은 인간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소외된 현대인의 단면을 표출하고자 인체를 분해하거나 조합시켜 나갔다. 각종 매체들을 오려붙이고 로봇을 조립하는 것처럼 인물의 형태를 조합하였다. 각종 상표들과 인쇄매체 특히 도시 이미지를 수집하는 일은 본인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이미지는 카메라로 담아낸 사진을 오려 붙임으로써 평소 발견하지 못한 우연적 요소들을 찾아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방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선택한 기법은 포토 에칭(Photo Etching), 아퀴틴트(Aquatint)가 주된 표현 방법이다. 본인이 동판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판재가 부식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현대인의 삶과 소외된 인간의 내면적 정서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판은 다른 판재에서 오는 느낌과는 사뭇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

9) 함정도 · 손유찬, 공간디자인과 조형 연습, 기문당, 2003, p.50

다. 딱딱한 금속에서 판의 깊이감을 얻을 수 있고, 무한한 톤을 형성하는 드로잉에서 미처 발견치 못한 미적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 공간을 그대로 담아내고 인간 몸짓에 의해 현대인이 갈망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포토에칭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포토에칭은 석판화나 실크스크린의 평면적인 가벼움보다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딱딱하고 무거우며 이지적인 도시 이미지들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경의 톤은 단계적으로 부식시켜 반복적으로 깎아내고 긁어내어 표현하였다. 이렇게 풍부한 톤을 살림으로써 소외된 인간의 형상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은 인간 형상 속에 도시 건물과 각종 매체, 상품을 투영하여 여백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인간의 자아상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1】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30×45cm. 2003

【작품 1】 투영 Reflection

앉아 있는 모습으로 전철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회사원을 모티브로 삼은 초기의 작품이다. 빼곡히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현대인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작품 1]은 인물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묘사가 아니다. 인체 모습 속에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또 다른 건물의 이미지들이 존재하며, 인물과 건물 사이에 이루고 있는 틈들은 도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선들과 전기줄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풍경들은 인간 형상 안에 투영되어지며 도시삶의 정서들을 담아내고 있다.

사진 속 건물은 실제 이미지이며 과장된 인체의 이미지들 사이에는 젓소로 발라 미묘한 느낌을 만들었다. 이후 반복적인 선의 겹침과 목탄의 풍부한 색감을 이용하여 틈을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 표현에 있어 구체적인 머리, 눈, 코, 입은 중요하지가 않다. 물론 사람의 얼굴에서 인간의 삶을 느껴지기도 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자세한 묘사 보다 인체의 몸짓이나 행위 그 자체에서 현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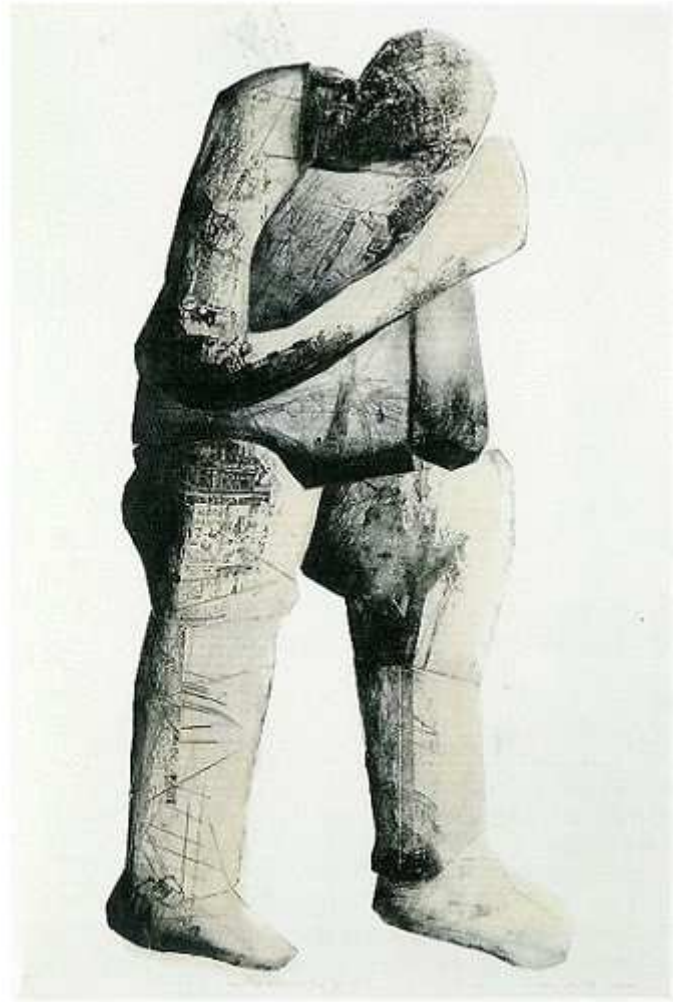


【작품 2】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108×78cm. 2003

【작품 2】 투영 Reflection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메마른 콘크리트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각각의 인물은 주로 군중이 아닌 한 명 또는 두 명만 존재한다. 앞서서도 얘기하였듯이 본인이 생각하는 현대인의 감정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다. 이러한 소외는 무미건조하고 억압적인 위압감을 주는 도시 공간 속에 존재한다. 이 작품은 도시풍경을 포토에칭 기법으로 작업하였으며, 인간의 형상은 왜소한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2]은 지쳐 앉아 있는 모습을 드로잉하여 동판으로 옮겨 제작하였다. 인간의 형상은 조각된 판으로 이루어졌으며, 딱딱하고 기계적인 로봇처럼 조합되었다. 0.7mm의 얇은 동판을 함석가위 잘라내어 분해된 동판을 다시 조합 하여 찍어 내었다. 0.7mm의 동판은 부식된 판의 깊은 맛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얇은 동판을 사용해 판의 겹침에서 오는 우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동판이 얇아 깊은 부식의 맛을 살리지 못하지만, 반복적인 선의 겹침과 동판의 겹침으로 나타난 우연적 효과로 톤을 만들어 내었다. 각각의 판은 도시건물이나 전기줄의 이미지를 전사시켜 포토에칭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이미지는 밑그림에 맞추어 조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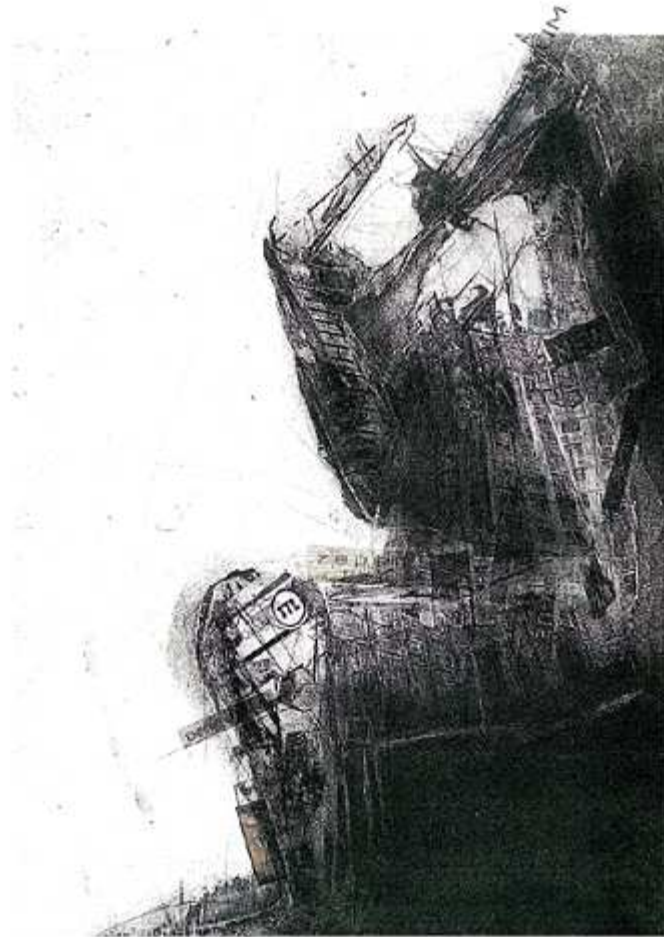
【작품 3】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100×70cm. 2004

【작품 3】 투영 Reflection

이 작품에서 보이는 현대인의 모습은 조각품처럼 보인다. 절단된 판은 기계적인 로봇같이 표현하였다. 자신은 찾을 수 없고 자아가 상실된 사람, 콘크리트 속 구조물 속에 유리창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모습, 담배를 피며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 장바구니를 들고 앉아 있는 할머니, 술에 취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 술에 취해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현대인의 무기력한 삶을 통해 인간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작품2]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하였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덩어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덩어리는 판과 판 사이에 우연적으로 겹쳐지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명암의 차이를 크게 함으로써 나타내었고, 특히 판에 들어간 이미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드로잉하여 표현하였다.

색의 사용에는 적합한 도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배경판에 회색으로 사용하였다. 화면에서의 색은 각각의 판에 따라 다른 색을 사용하였다. 검정색에 초록, 빨강, 노랑, 파랑색 등을 섞어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도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 4】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30×40cm. 2004

【작품 4】 투영 Reflection

도시 공간과 광고문구, 인쇄매체는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상징이다. 이러한 공간과 매체는 현대인 삶의 일부를 이루는 요소이다.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방식은 도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고독과 소외를 품고 살아간다. 이들은 서로 투영되고 삶에 반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의 인간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작품에서 보듯이 각종 상품이 투영되며, 이는 당시 다양한 상품으로 치장된 옷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은 광고 잡지책에서 오려낸 것이며, 다양한 색상의 문구와 상품에서 추출되어 인간의 형상 안에 투영하였다. 작품 속 인물 형상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며 다시 어두워진다. 밝고 어둠의 경계는 여러 단계를 거친 톤들로 이루어진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톤은 인간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형적 수단임과 동시에 화면 구성에 있어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러한 공간은 사색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작과정에 있어 판은 찍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의 상표들을 찍기 전 미리 계획된 판화지에 붙였다. 이렇게 오려붙인 상표는 판화지에 있는 수분이 잉크를 흡수하여 자연스러운 효과를 나타내었다. 오른쪽 하단의 톤은 시간 단계를 두어 부식시키고 다시 여러 차례 사포로 문질렀다. 이러한 과정은 판과 사포로 문지른 미세한 입자들의 차이에서 오는 우연적 느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다.



【작품 5】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30×40cm. 2004

【작품 5】 투영 Reflection

두 인물은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모델로 하였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늘 혼자이다. 도시 공간에서의 밤거리는 늘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함께한다.

조각조각의 상표들은 우리 삶과 함께하며 현대인의 삶을 반영한다. 상표와 레터링(Lettering)한 숫자들은 소비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조형적으로는 부분적 변화를 주기 위해 상표를 오려 붙이기도 하며, 레터링(Lettering)으로 상표를 부각시켜 물질 사회에서의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몸의 중심부분은 복잡한 전기줄로 얽혀 있다. 이것은 니들에 의해 굽힌 선의 강약으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즉흥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선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였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선과 무의식적인 선의 흔적들을 통하여 차갑고 비인간화된 현대인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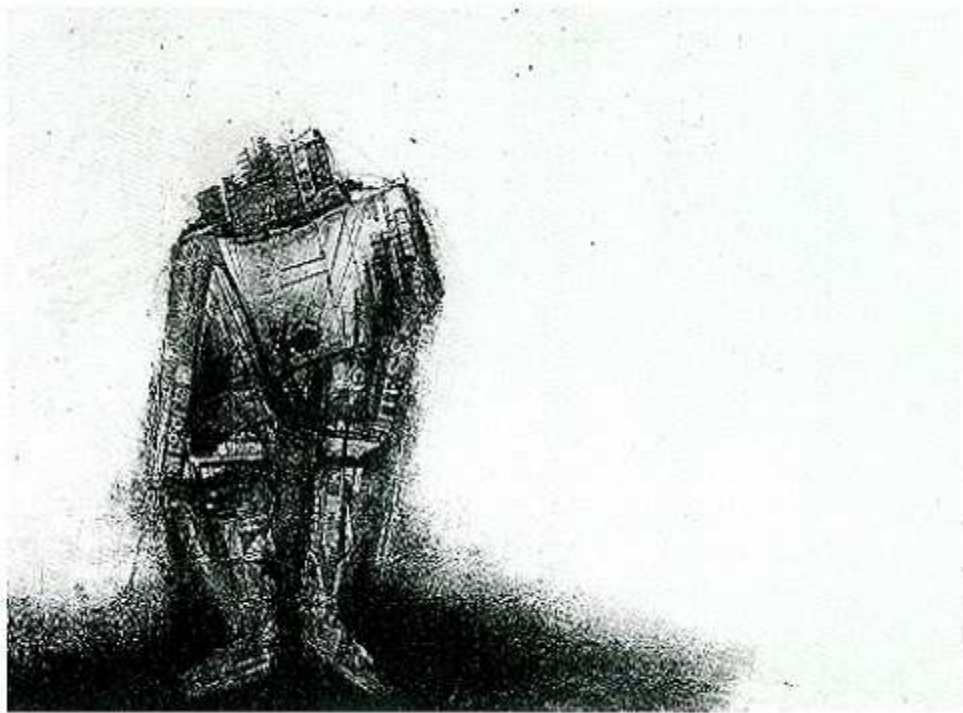
【작품 6】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60×90cm. 2004

【작품 6】 투영 Reflection

꿈을 꾸고 있는 현대인이다. 팔을 기대고 앉아 있는 인물의 포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꿈을 꾸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도시 공간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현대사회에서 풍요롭길 갈망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졌으나 자아상실과 소외를 느낀다. 꿈을 꾸고 있는 현대인은 상품들로 조합된 인간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벗어나려 해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인 이상 벗어나지 수 없다.

회화에서의 구도는 중요하게 자리 잡는다. 그러나 본인에게 공간은 의도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공간이다. 화면의 절반은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다. 빈 공간의 흠집이나 스쳐 지나가는 선들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나타낸다.

여백의 흠집들은 그라운드액을 바를 때 붓자국의 흔적이다. 이러한 흔적은 완벽하게 칠하지 않고 우연적인 부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이다. 오른쪽 하단의 검정 부분의 톤은 아퀴틴트(Aquatint)로 여러 차례 시간을 나누어서 부식하였으며, 풍부한 톤은 인물 형상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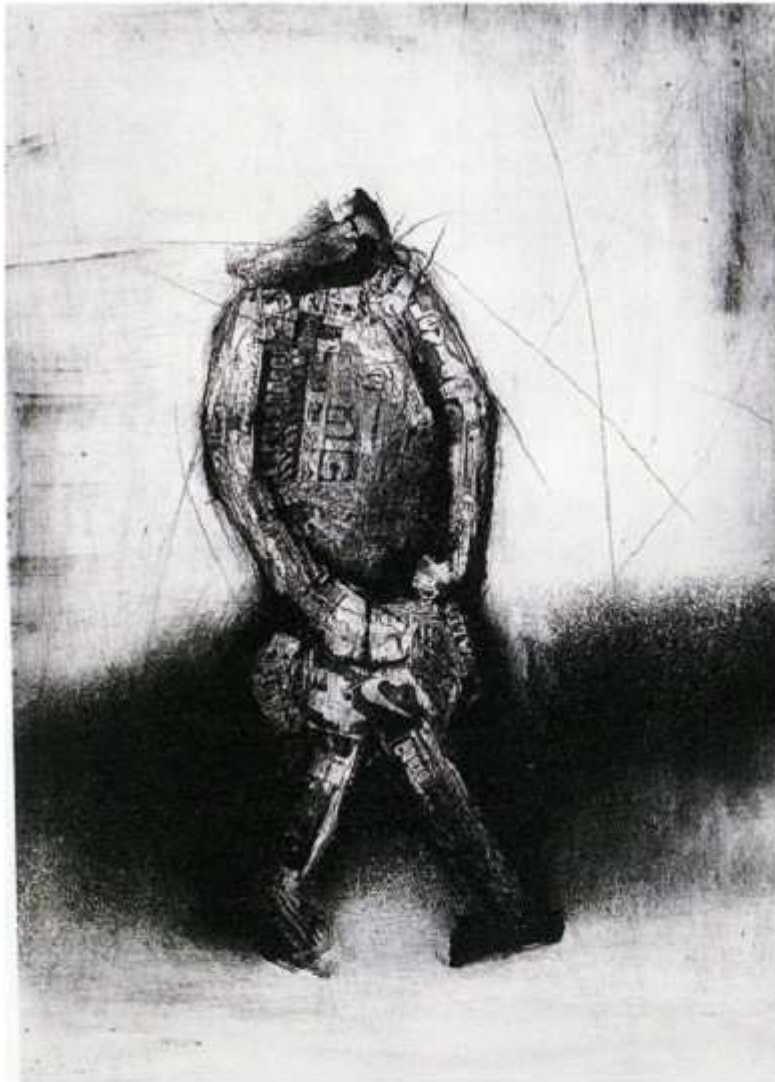


【작품 7】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20×30cm. 2004

【작품 7】 투영 Reflection

웅크려 앉아 있는 자화상이다. 늘 웅크려 앉아 있길 좋아하고 혼자이길 좋아한다. 작품 속의 자신을 보면서 현실에 처한 본인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기력해지는 자아를 돌이켜 본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고 방황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머릿속은 건물로 채워져 있고, 몸은 상표들로 채워져 있다. 바닥의 그림자는 차갑고 메마른 곳이며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고 여백의 공간은 공허함을 나타낸다. 작품 속 자아의 마음 저변에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깔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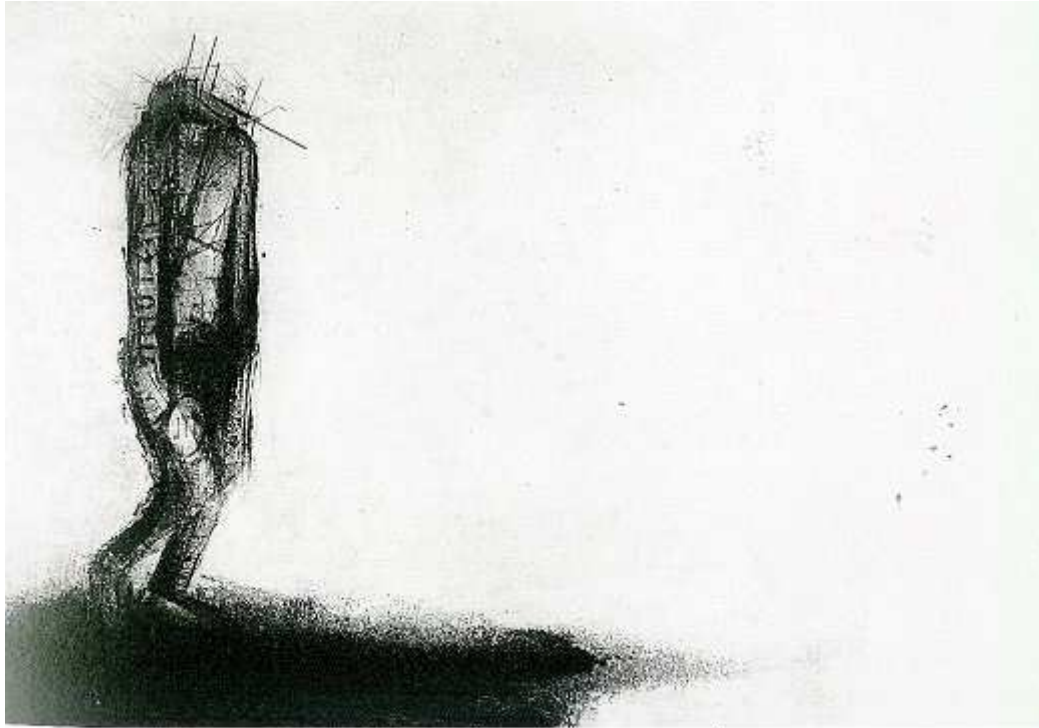


【작품 8】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50×70cm. 2004

【작품 8】 투영 Reflection

현대사회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졌지만, 현대인의 마음은 빈곤하다. 이러한 현대 사회는 현대인에게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인간의 모습은 건물과 상표, 매체로 둘러싸여 있고,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혼자이며 자아상실이 나타나게 된다.

여백 속 판의 부식된 흔적들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로 표현하였다. 화면속의 공간은 아퀴틴트의 송진가루의 미세한 입자들로 톤을 만들어 내었다. 잉킹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잉크의 흔적들과,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선들의 교차로 공간을 표현하였다.



【작품 9】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20×30cm. 2004

【작품 9】 투영 Reflection

홀로 도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였다. 비 오는 날 도시건물 사이로 걸어 본 적이 있다. 평소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던 건물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주변은 자동차 견적 소리만 들리며 바닥에는 단지 그림자만이 함께 할 뿐이다. 화면 전체에서 도시의 삭막한 느낌과 외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여백은 적막함을 드러내며, 쓸쓸하고 고독한 현대인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인물의 머리 형상은 건물도 아닌 전신주가 채워져 있다. 몸 안에 투영하고 있는 광고문구들은 복잡하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다. 인물 형상을 이루고 있는 도시 건물과 상표는 극도로 자제하여 날카롭고 직선적인 선들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침묵, 고요함을 그 때의 상황에 동참하면서 시간에 따른 현대인의 감정과 심리를 분석하여 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9]는 화면 속 인물에 초점을 주었다. 다른 작품과 달리 여백에는 선을 자제하고 사포로 문질러서 여백의 미묘한 톤을 만들어 내었다. 바닥의 그림자는 아퀴틴트로 깊게 여러 번 부식하여 동판의 깊은 효과를 주었다.



【작품 10】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30×70cm. 2004

【작품 10】 투영 Reflection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익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숨가쁜 생활을 하며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아파트 복도를 나와 잠시 담배를 피며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며, 현대인은 부를 꿈꾸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원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늘 경쟁을 해야 하는 삶 속에서 늘 쫓기며 찌들린 삶을 살아간다.

본인의 작품은 인물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단지 고개를 떨군 모습이나 인물의 몸짓을 통해서만 현대인의 갈망이나 외로움을 읽을 수 있다. 투영된 상표의 이미지는 있는 듯 없는 듯 묘사되어 있고, 인물의 몸짓은 과장되어 풍부한 톤으로 덩어리의 느낌을 주었다. 오른쪽 여백에서 어두운 톤은 딱딱한 구조물로 된 콘크리트 벽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방은 벽면으로 채워져 있는 삭막한 공간이다. 이 어두운 톤은 어둠 속에서 방향감을 상실한 채 고달픈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인간은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도시 공간 속의 현대인을 의미한다.



【작품 11】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30×70cm. 2004

【작품 11】 투영 Reflection

두 팔을 위로 들고 있는 사람이다. 머리에 들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물이 아닌 각박한 도시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도시 건물의 이미지는 몸 안에 담아내고 있으며, 머리의 형상은 전신주로 채워져 있고, 팔과 다리는 상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 작품 또한 각박한 도시공간에서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며, 여백의 오른쪽 화면에서 꽉 채워진 공간이 아닌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환기통 같은 역할을 한다. 바닥의 공간은 그림자가 아닌 인간의 모습을 지탱하고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 톤의 강약으로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다. 기존의 작품은 외로움이나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면 이 작품은 해학적인 포즈로 재미있고 과장된 몸짓으로 재미있는 포즈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수많은 다양한 곡선을 반복함으로써 자유분방함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색은 모던한 느낌을 주기 위해 흑색의 안료와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였다. 활동적이면서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주었고, 바닥의 색은 검정색 안료와 검정색 잉크를 혼합하여 다양한 검정 톤들의 변화를 주었다.



【작품 12】 투영 (Reflection)
etching · aquatint. 60×90cm. 2004

【작품 12】 투영 Reflection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기력한 현대인을 보여준다. 두 팔은 다리 위로 올려놓고 수동적인 자세로 웅크려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 뒤에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 드러나지 않은 물질문명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의 형상을 강조하였다. 매체, 광고문구의 이미지는 흑색과의 혼합된 색을 사용하여 모노톤을 만들어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화면은 밝은 면과 어둠의 대비로 인한 효과를 주어 현대인의 내면과 이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판화로 제작 시 밑그림의 완성도는 매우 중요하다.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판재로 옮길 때 동판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제작 과정을 보면, 먼저 드로잉은 톤을 내기 위해 목탄으로 칠하고 자유로운 곡선의 느낌은 펜을 이용한다. 드로잉이 완성되면 OHP필름지에 복사를 한다. 이때 OHP에 복사된 이미지는 자칫 망점이 보여 작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으므로 복사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오지 않도록 한다. 필름지의 이미지는 곧바로 감광 하면서 동판으로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필름지에서 완벽한 드로잉이 나오도록 여러 번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이 의도한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는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동판으로 옮겨진 이미지들은 부식되는 과정과 부식된 판을 사포로 문지르고 니들로 긁고 다듬는 과정을 통하여 찍혀진 판화의 참된 노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 본인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불안한 심리와 이를 어떤 과정으로 작품에 반영하였는지 설명하였다.

본인은 우리가 늘 접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 공간과, 그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 작업을 하였다. 본인이 주목한 것은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이 현대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자아상실과 소외감이라는 현대인의 내면세계에 주목하였다.

본인은 위에서 설명했던 인간소외와 자아상실을 도시 공간과 현대인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현대 물질문명은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안에, 그리고 현대인의 모습은 공간 안에 내포되었다. 본인은 현대인과 도시 공간의 상호역동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작업으로 옮길 때 본인은 단순히 일상적인 대상을 분석,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에 의한 경험의 요소들을 통해 이를 재해석하는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시각적 표현과정에서는 현대인의 심상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도시 건물은 이미지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포토에칭 기법으로 표현하였으며, 현대인의 모습은 동판이 부식되는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작품 속 공간은 소외되고 고독한 인간의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작품의 전개는 작품 제작 시 판화에서 찍혀 나온 표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표현은 동판을 사용함으

로써 드로잉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한 톤을 얻을 수 있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현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의도했던 바가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인물의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자아상실과 인간소외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인물의 형상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도록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인은 작품을 하는데 있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싶다. 판재를 다루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에 의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매체를 찾음으로써 인간의 삶과 깊이 관계하여 작업을 더 표출할 수 있는 보완점과 전환점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홍구, 시사한 것들의 아름다움, 황금가지, 2001
- 그랜트 매크래켄, 문화와 소비,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7
- 김상우, 죽음의 사회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왕배, 도시-공간-생활세계, 한울, 2001
- 김용석, 일상의 발견, 도서출판 푸른숲, 2002
-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7
- 아놀드 하우스, 예술과 소외, 김진욱 역, 서울 종로서적, 1991
- 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2004
- 정해창, 인간성 상실과 위기극복, 서울 정신문화 연구원, 1985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도서출판 한울, 2002
- 진교훈외 지음, 인간과 현대적 삶, 철학과 현실사, 2003
- 철학 사상 연구회, 삶과 철학 -노동과 소외-, 동녘, 2003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 함정도 · 손유찬, 공간디자인과 조형 연습, 기문당, 2003
- I.R.I색채 연구소, 어떤색이 좋을까?, 영진닷컴, 2004
- Rollo May,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화 출판사, 1978

ABSTRACT

A study of state of human's mind in the city space

Jwa, Sun Sim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rtworks that I created from 2003 to 2004 and proposes some analysis on my works and the process how they created theologically.

Art should be able to catch not only bright side of the world but dark side of it. That is a true reflection of the phases of times. Besides, artists should provide a motive of cogitation to people so that they can look back themselves. Therefore, I worked focusing on the human's expectation on the unknown future and human being itself dragging dark side of a modern city space.

City is the place where people commit crimes destroy environment. City is also the place of confusion and keen competition as well as social abnormality and disturbance. Moderners always push themselves in the city space so that they are not left behind from the rapid-changing civilization. Estrangement of human being is resulted from the competition of on

materials among individuals within a society. Many problems of the modern society are resulted from a dense population. Among those problems, losing their sense of humanity among people is the most crucial one. Divesting human qualities can result self-effacement and neglect of human being. Self-effacement is a word for moderners who have no cognition on self-existence and are pressed by work in everyday lives.

In the paper, I observed concrete buildings and various kinds of brand to express losing sense of humanity. First, Concrete buildings are symbols of desolate city space since the environment and human value were harm so that they could be built on the ground. Secondly, various kinds of brand is a medium that defines material life, value inversion, and differe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Figures in my works represent the inner world of modern society and they are not only in the boundary of reality but the space for the dreams and phantasm. Margins emphasize on the sense of alienation of moderners.

As a background of the paper, I examined what makes people in the cities feel lonely and being alienated losing their identity. The last part of the paper investigates the circular model which has the inter-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a society so that we can study the procedure of human estrangement.

As methods of expanding the topic of my work, dusky tones of colors are frequently used and those colors are corroded by curved lines and straight lines on a copperplate giving depth to the works. In this way, I could express inhumanity and complication through human figures.

As observed above, I expressed dehumanization by showing figures of moderners which are mechanized and standardized. Even though those figures are same as the shapes of human being, they are uncompleted men since they lack of humanity and identity. Unstable and lonely figures make us to think about that those figures are the reflections of ourselves.